



3면 "대정부투쟁 수위 강화"

# 전주매일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음 8월 1일) 제334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14일 재단 일원에서 제12회 젠더문화축제'를 연 가운데,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전정희 원장, 여성기관·단체장, 도민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다름이 모여 함께하는 다음'

### 제12회 젠더문화축제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14일 재단 일원에서 '제12회 젠더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여성기관·단체장 및 각급 기관장과 유치원생, 청소년, 청년, 성인 등 도민 1,500여 명이 함께했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은 젠더문화축제는 '다름이 모여 함께하는 다음'이라는 주제로 도내 여성·가족·대학·기업·종교 관련 40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먼저, 오전에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120여 명을 초청해 자출산 대응 인식 개선 인형극을 상연하고, 또 재직 여성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인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에서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패럴 5인이 자신이 경험한 일상 속 성차별 사례를 들려줬다.

이어 'Talk Talk한 그녀들'에서는 '메타버스 시대의 성문화'라는 주제로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성영화상영'은 박미리 감독의 다큐멘터리 '어쩌다 활동가'를 상영한 후 감독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함께 그린 미래'는 '물 발자국'이라는 주제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전북연구원이 준비한 '젠더 포럼'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제 폭력의 유형과 실태를 알아봤다. 이밖에도 재단 앞마당에서는 여성친화기업 및 공동추진기관·단체 생산품 홍보·판매와 더불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임신부 체험, 동맥경화검사, 제로웨이스트마켓, 심폐소생술 체험, 공중무역 상품 전시 등 28개 기관·단체의 홍보부스가 운영됐다. /정은성 기자

## "전북 주도 지방시대 실현"

김관영 도지사, 지방시대 비전선포식 참석

제1기 위촉위원 17명 중 전북·연고 위원 3명도, 20인 이내 전북도 지방시대위원회 발족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김 도사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뜻을 모으며, 전북도도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전북도 주도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 발표와 함께, 제1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장 수여와 지방시대 전략도론회 등이 이루어졌다. 제1기 지방시대 위촉위원 17인 중 전북권 위원으로는 △전라북도 전라대학교 교무부처장 △이은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이 위촉됐다. 또한, 전북 연고위원으로 △박기관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전북도는 지난 13일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이명연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의 공동발의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인 이내의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의 핵심과제 추진에 있어 전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는 '공감·연대형 위원회'가 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8월 18일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제로 열린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과 전북도의 중점 추진사업,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등을 반영해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을 성실하게 수립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0월 중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가야 세계유산등재 이후 준비하자'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장수가야 문화유산 세계유산 확장 등재  
가야 봉수 에코뮤지엄 조성 등 전략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하며, 전북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와 직·간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제시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그 동안 영남지역 가야와 달리 가야문화 서북부인 전북 남원까지 가야의 경계가 확장됐다는 점과 백제와 자율적으로 교섭했던 가야의 정치체를 잘 보여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산적 의미가 크다.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전라북도는 고창의 고인돌 유적(2000),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정읍의 무성서원(2019), 고창의 갯벌(2021)에 이어 세계유산 5개 등재지역으로 부상했다. 세계유산등재는 지역적 자긍심 고

취, 국제적 브랜드 가치 상승 뚜렷한 지역관광 수요 유발 지역발전 경쟁력 강화 등의 직접효과와 지역민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의 간접효과가 있다. 전북연구원은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직간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수가야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 △철 테마 국립박물관 건립, △가야 봉수 에코뮤지엄 조성, △유네스코 루리타지(RURITAGE)프로젝트 추진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서 완전성과 진정성을 대부분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장수가야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영남지역 가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전북가야에 밀집 분포하고 있는 제철유적의 특성을 살펴 가야 철을 테마로 한 국립박물관 건립도 제안했다. 또한, 전북 동부 봉화유적은 남원과 장수는 물론 무주, 진안, 완주, 임실, 충남 금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전북 동부권의 봉화유적'을 하나의 야외박물관 관련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하고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에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산주도 지역 재생 프로젝트인 루리타지(RURITAGE)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이제는 전북가야 세계유산 등재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전북가야 세계유산등재의 지역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유산의 보존을 넘어 관광 및 지역재생 등의 지역활력 창출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입니다.

회계인도 호고싶은

# 진안홍삼축제

2023 JINAN RED GINSENG FESTIVAL

9.22(금)~9.24(일) 마이산 북부

9.22. 몽금척 퍼레이드, 진안의 영광(코요태, 부활), 별별 퍼레이드  
9.23. 나는 진안가수다,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9.24. 청소년 문화축제(이채연), 가족뮤지컬 <브레드 이발소>

홍삼킹덤을 지켜라! 가족공연(풍선, 마술, 버블) 두둥실~열기구체험 등등  
진안홍삼축제에서 만나요 ^^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2020~2023 문화관광축제 진라북도 최우수 축제  
주 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문의처: 063)430-2391-3 www.jinan.go.kr/festival